

제3세계 작가 크게 늘어...북한 미술도 만난다

광주비엔날레 40개국 153명 참여작가 발표

67% 아시아 작가...한국작가 역대 최대
'상상된 경계들' 주제 7개 주제전 꾸며
'GB커미션' '파빌리온...' 프로젝트 진행

1995년 첫발을 댄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중향쟁의 상처를 문화예술로 승화한다는 창설 배경을 갖고 있다. 올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시민사회에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와 인권, 평화의 목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1일 2018광주비엔날레 40개국 153명의 참여작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단일 예술감독이 이끌던 역대 비엔날레와 달리 크리스틴 Y. 김(L.A.가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등 11명 큐레이터가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7개 주제전을 꾸리게 된다.



니나 사벨 애브니 작 '페니 드레드풀'

아시아 작가 최대 참여--개발·냉전 등 주제 풀어나
참여 작가들은 인류 역사와 사회적·정치적 환경 등의 '경계'에 있는 동시대 여천들을 시각적으로 다채롭게 펼쳐낸 계획이다.

올해 참가한 153명의 작가를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 16개국에서는 103작가, 유럽 8개국 12작가, 북미 2개국에서 11작가, 남미 4개국에서 12작가, 중동 5개국에서 7작가, 오세아니아 2개국에서 5작가, 아프리카 3개국에서 3작가가 참여했다.

특히 남미와 중동 등 제 3세계권 작가나 디아스포라 이력을 지닌 작가의 참여가 확대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카셀 도큐멘타, 베니스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 미술 전시에 참여했으며 마르셀 뒤샹 프라이즈를 수상한 카테리 아티아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베를린과 알제리를 오가며 작업하는 이민자 2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해에는 아시아 작가의 참여가 67%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라인업도 화려하다. 아파차트 워라세 타운을 비롯해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관 대표작가로 선별된 호 추 니엔, 나라 요시모토 등 스타작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역대 광주비엔날레에서 가장 많은 43명의 한국 작가들이 포진했다.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조대 작가 김아영 작가를 포함해 포트폴리오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한 광주·전남 출신 작가인 강동호, 문선희, 박상화, 박세희, 박화연, 오윤석, 윤세영, 이정록, 정영승, 최기창 등의 10명도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 역시 목직한 것들이 많다. 국가가 구축하는 집단과 민족성, 공권력의 폭력을 다룬 사회 비판적인 작품도 두드러진다. 뉴욕의 니나 사벨 애브니는 대형 야외 벽화 신작을 통해 폭력의 문제를 환기하며 이우성 작가는 신작 걸개그림을 통해 동시대 한국 사회 및 정치적 순간에 대한 발언형태를 담아낸다. 안정주 작가는 올림픽이라는 국가 주도하의 국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기제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보여준다. 또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에 편승하며 변화하는 풍토를 나이트클럽이라는 소재로 드러낸 중국 출신의 첸 웨이는 광주 전시에서도 나이트클럽을 통해 광주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또 박화연 작가는 신군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맞선 광주 정신을 조명하면서 동시대적 삶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다. 노윤희와 정현석의 듀오 로와정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삭제된 개인과 과거의 목소리를 복원시키는 행위를 시도한다.

대형 집체화 대거 선보이는 북한미술전 세계 최초
북한미술 권위자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 미술을 연구해 온 문범강 큐레이터의 북한미술 섹션은 화제의 전시다.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 등의 소장품에서 선별한 조선화 20여 점을



최창호 작 '로동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장조원 6관에서 선보인다. 조선화 분야에서 북한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최창호 인민예술가, 김인석 공훈예술가 등 31명이 참여한다.

광주 정신을 기억한다 'GB커미션'
광주 정신의 시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역사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 'GB 커미션'을 처음 시작한다. 20년 넘게 비엔날레 행사가 치러졌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남는 작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작한 프로젝트로 광주 5·18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민주·인권·평화의 목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참여작가로 터너 프라이즈에 두번 노미네이트됐던 영국 설치 작가 나이크 벨스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치열한 현장이었던 옛 국군 통합병원 내 전등, 문, 손잡이 등 건축물 부속품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또 아르헨티나 출신 아드리안 비사르 로하스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인 DNZ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광주를 소재로 한 신작을 선보이며 카테리 아티아는 광주민주화운동 생존자를 만나 상처로 1980년에 머무른 광주사람과 세계 사람과의 연결을 시도한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나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 등지에 세계 유수 예술기관과 연계전시를 진행하는 기획으로 2020년에는 참여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 전시관인 팔레 드 도교 관계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해외 미술기관들은 자국 신진 작가를 비롯해 한국 및 광주작가 참여 전시를 자부담으로 기획해 선보인다.

팔레 드 도교는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사용하던 공간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필리핀 현대미술기관의 연합체인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 한국작가와 필리핀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를 추진 중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미래의 문화시민 키운다 '어린이 박물관 학교' 개설...5~6학년 대상 운영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려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지킴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제12기 광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이하 박물관 학교)를 개설한다. <사진>
박물관 학교는 박물관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박물관 학습과 현장답사로 이루어진다. 박물관 교육은 4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정
토요일에, 현장답사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5~6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우리 지역 특색을 가미한 커리큘럼에 따라 전공·주제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와 전통문화와 연계된 흥미로운 융복합체험 학습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 참가신청서(사진첨부 필수)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접수(dasum98@naver.com)하면 된다. 062-570-7068, 7048,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을 모집한다.
2018년 3월 현재 광주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은 도서, 문화일반, 여행사, 숙박,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 906개소가 등록돼 있다. 지난 2017년도부터 체육사, 승마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전용가맹점은 NH카드사 및 KB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업체 중 문화, 여행, 체육 장르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업체는 광주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gjcfmunhwanuri)에서 신청서 및 약서를 내려 받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 제출(gjcfmunhwanuri@naver.com)하면 된다. 문의 062-670-791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광주지역 성 평등 공동체 실현의 주역인 여성소모임의 활성화를 돕고 여성친화도시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제6회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경진대회는 지역의 여성 소모임들이 모여 여성친화적인 주제와 활동을 선보이는 장이다. 문화와 돌봄, 생태·환경, 안전·건강, 일자리·경제,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5인 이상의 광주지역 여성소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정책 및 실현에 관심 있는 여성 소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소모임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경진대회 공모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공개심사를 거치게 된다.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5개 팀은 각각 60만 원의 운영 실비를 지원받아 4개월 동안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문의 062-670-0532. /전성재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